



**예거 르쿨트르와 메종의 프렌즈 김우빈이
THE SOUND MAKER 를 기념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올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특별한 전시회에서 그랑 메종의 새로운 프렌즈인 김우빈과 함께 The Sound Maker 를 기념합니다.

The Sound Maker 전시회는 예거 르쿨트르의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세계로 관람객을 초대하여 그랑 메종의 차임 시계가 지닌 풍부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유산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메종의 본고장인 스위스 발레드주의 자연의 소리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우빈:

“188 년의 오랜 역사와 뛰어난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가진 예거 르쿨트르의 프렌즈가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예거 르쿨트르와 함께 하게 될 여정이 기대됩니다.”

한국 배우 김우빈은 로맨틱 코미디에서 드라마, 액션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TV 시리즈와 흥행작에서 호평을 받으며, 매력적인 존재감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연기 경력을 바탕으로 올해 31 세가 된 그는 사회 공헌에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6 월 16 일부터 7 월 4 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진행되는 The Sound Maker 전시회에서 배우 김우빈과 함께합니다.



김우빈 약력

김우빈은 대한민국 배우로 2011년 KBS 드라마 스페셜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연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신사의 품격(2012)'에서 신인 배우로 큰 사랑을 받은 후, '상속자들(2012)'과 '학교 2013(2012-2013)'을 통해 높은 인기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영화 '친구 2(2013)', '기술자들(2014)', '스물(2015)', '함부로 애틋하게(2016)' 등 박스 오피스 영화와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다수의 작품에서 주연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최근 김우빈은 최동훈 감독의 신작 '외계+인'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외계+인'은 고려 말 소문 속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외계인이 출몰하는 2021년 현재 사이 시간의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The Sound Maker 소개

예거 르쿨트르는 150년간 축적해온 전문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발레드주의 일상적인 자연의 소리와 차임 시계의 위대한 유산에 경의를 표하는 The Sound Maker에 찬사를 보냅니다. 1870년, 매뉴팩처가 첫 번째 미닛 리피터를 개발한 이후 150년 동안 차임 시계는 간단한 알람부터 극도로 정교한 소네리와 리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며, 전문성을 입증하는 200개의 이상의 칼리버를 통해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매뉴팩처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음향의 품질과 그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수많은 혁신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